

충북 충주 남산 일대의 포유동물

최병진
한국자연환경연구소

Mammals fauna from Chungju area

by
Choi, Byung-Jin
Korea Natural Environment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ascertain species of mammals which are occurred Chung-ju city in Chungchong province. The mammalian fauna of Chung-ju city in Chungchong province include 9 family 13 species(*Crocidura lasiura*, *Mogera wogura*, *Nyctereutes procyonoides*, *Mustela sibirica*, *Felis catus*, *Hydropotes inermis*, *Sciurus vulgaris*, *Tamias sibiricus*, *Apodemus agrarius*, *Mus musculus*, *Rattus norvegicus*, *Rattus rattus*, *Lepus coreanus*).

서론

본 조사지역인 남산(636m)인 속해 있는 충주시는 우리 나라의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21만의 도시이다 남산(636m)은 충주시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충주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하는 계오산과는 지방도 520번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다. 산에는 산 전체를 싸고 감돌아가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산의 하단부에는 사과 과수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산자락까지 논과 밭이 개간되어 있어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서 이곳의 생태계는 주변의 생태계와 단절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변에 음식점들이 산재해 있는 등 인위적인 간섭 또한 심한 곳이다.

산림은 일본잎갈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 비교적 단순하고 계명산에는 자연휴양림이 개설되어 있어 임상의 발달도 미비한 편이다.

조사일정

1차 조사 2000년 8월 25일~2000년 8월 27일

2차 조사 2001년 4월 5일~2001년 4월 7일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직접 조사방법과 청문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접 조사의 경우에는 육안관찰과 소형동물들의 서식지 입구에 일몰 전에 생포틀(Shemian live trap)을 설치하여 포획하여 관찰하였으며, 중대형의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임도와 소로를 따라서 동물의 직접목격, 족적, 배설물, 서식흔적 등을 관찰하였다.

조사결과 및 결론

본 조사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포유동물은 총 9과 13종이었으며, 관찰지점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조사지역에서 채집된 등줄쥐

직접 개체를 관찰한 것은 멧토끼와 채집된 등줄쥐 2마리(그림 1)와 같으며, 본 조사단의 심재한 박사에 의해서 닻쥐의 사체 1마리가 확인되었다.

등줄쥐는 주변의 경작지에서 포획틀을 이용하여 채집하였으며, 멧토끼는 야간 탐조등 조사를 통해서 임도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조사결과 조사지역의 면적에 비해서 포유동물의 서식이 적게 확인된 것은 조사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본 지역이 대부분 도로와 인위적인 공간에 의해서 단편화되어 중·대형의 포유동물이 서식하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조림에 의한 단순림으로 소형의 포유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도토리나 열매가 맺히는 유실수가 적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본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현재의 충주시 남산지역에는 중형 이상의 포유동물은 서식에는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향후 이 지역을 생태공원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서식지의 보전이다.

종의 보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들이 먹이를 먹고 활동하고 자손을 번성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남산의 경우 중형이상의 포유동물이 살기에는 서식지의 면적이 협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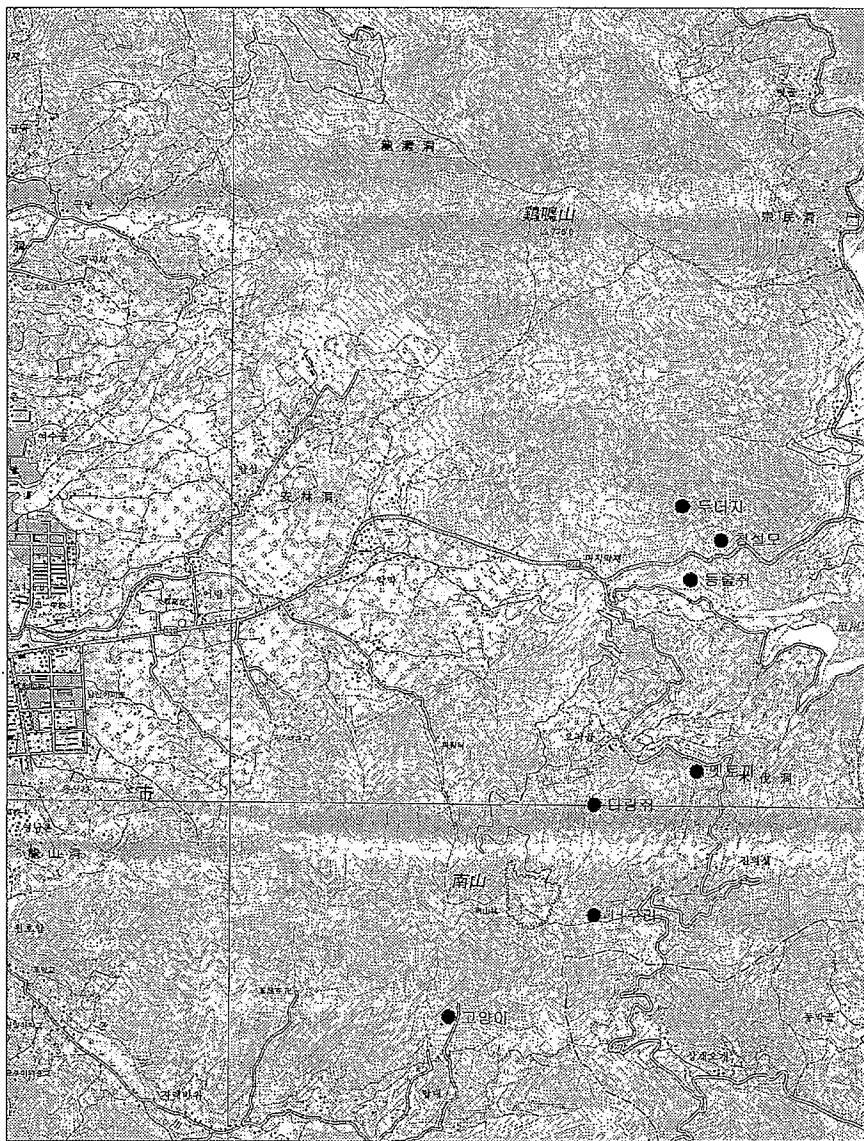


그림 2. 관찰 지점

둘째, 다양한 생태통로의 조성

남산의 경우 지방도 520번에 의해서 인접하는 계오산과 격리되어있으며, 국도 3번에 의해서도 인접하는 생태계와 격리되어 있다. 이렇게 도로에 의해서 단절화된 생태공간을 연결해 주어야만 중형이상의 포유동물들이 이주해 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위생태계의 복원

동물들이 다른곳에서 이주해와서 지속적으로 살아 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먹이자원이 될 수 있는 식물생태계가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조림에 의한 단순한 식생보다는 다양한 높이와 열매를 맺는 수종을 식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의 이주

남산의 대표종이 될 수 있는 고라니를 이주한다면 충주호를 대표할 수 있는 수달을 복원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충주호에서는 수달의 서식에 대한 자료가 매우 희박한데 이는 충주호내에서 가두리 양식장이 조성되었을 때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포획과 덫의 설치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했을 것이다. 현재는 가두리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달의 복원은 추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표 1. 충주시 남산일대에서 관찰된 포유동물

학명	국명	조사방법	비고
ORDER INSECTIVORA	식충목		
FAMILY SORICIDAE	땃쥐과		
<i>Crocidura lasiura</i>	땃쥐	사체확인	
FAMILY TALPIDAE	두더지과		
<i>Mogera wogura</i>	두더지	터널관찰	
ORDER CARNIVORA	식육목		
FAMILY CANIDAE	개과		
<i>Nyctereutes procyonoides</i>	너구리	흔적관찰	
FAMILY MUSTELIDAE	족제비과		
<i>Mustela sibirica</i>	족제비	관찰	
FAMILY FELIDAE	고양이과		
<i>Felis catus</i>	고양이	관찰	야생화종
ORDER ARTIODACTYLA	소목		
FAMILY CERVIDAE	사슴과		
<i>Hydropotes inermis</i>	고라니	청문	
ORDER RODENTIA	쥐목		
FAMILY SCIURIDAE	다람쥐과		
<i>Sciurus vulgaris</i>	청설모	등지관찰	
<i>Tamias sibiricus</i>	다람쥐	관찰	
FAMILY MURIDAE	쥐과		
<i>Apodemus agrarius</i>	등줄쥐	채집	2마리
<i>Mus musculus</i>	생쥐	청문	
<i>Rattus norvegicus</i>	집쥐	청문	
<i>Rattus rattus</i>	애굽쥐	청문	
ORDER LAGOMORPHA	토끼목		
FAMILY LEPORIDAE	토끼과		
<i>Lepus coreanus</i>	멧토끼	관찰	

참고문헌

원병희. 1967.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포유류). 문교부

최병진, 2000. 국립공원협회. 자연공원세미나 멸종위기 동식물의 실태 및 종다양성 보전관리방안. pp. 37~52.